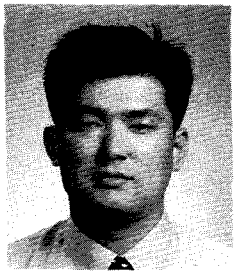
점검/육계 사양관리 문제점

무계획적인 입추, 과도한 밀사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최 용 순
(주)대연농산 사육팀장

양계업계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힘겨웠던 시간들이었다. 1월 초순 대설로 인한 양계장 붕괴, Virus질병의 만연 등 이로 인한 사육성적 부진으로 사육농가의 사육 수익성 감소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반기였다.

대설이 천재지변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양계시설이 부실해서 발생된 피해가 더 컷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여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 육계 사육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필드에서 사육농가를 지도하며 느낀 육계사육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육계사육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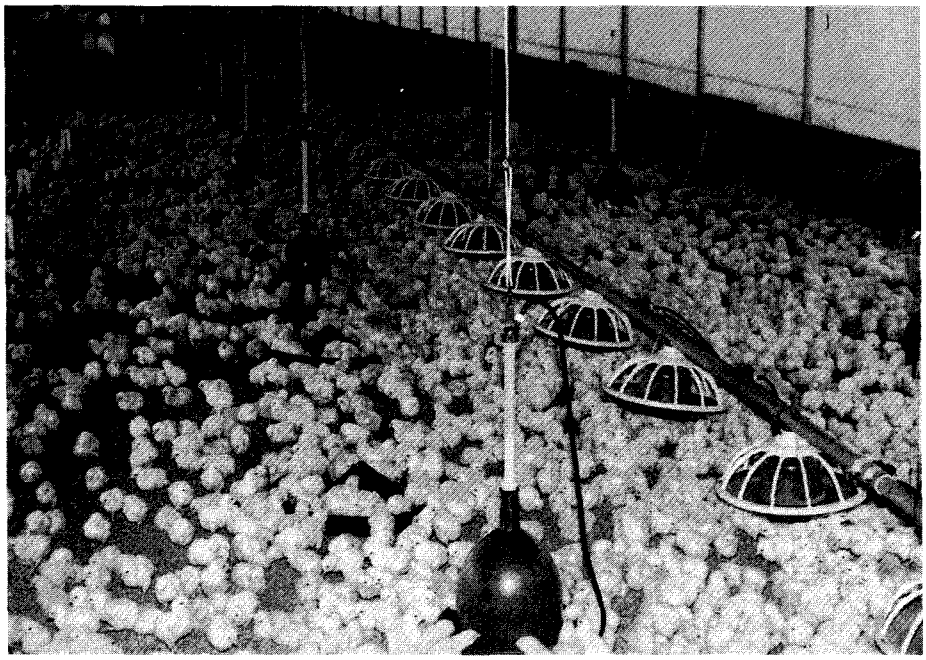
1) 입추준비 부족

충분한 입추 준비 후에 입추를 하여야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입추를 하여 습도유지, 적정온도 유지, 단열상태 점검, 급수기 상태 점검 등이 부족하여 성적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입추 2~3일 전에 사료주문, 약품준비, 급이기, 급수기, 열풍기 점검 등 입추준비를 마무리하고 입추당일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까지 마무리한 후 입추를 하여야 입추시 점검해야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밀사

환기시설 및 관리가 불충분한 계사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계사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육수수의 제한을 받게 된다. 만약 충분한 용량의 환기시설을 갖춘 계사에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계사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마리당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사료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절기 개방계사의 경우 밀사가 된 상태에서 열사피해가 발생하



면 대량폐사로 이어지며 이런 경우 경제적인 손실 뿐 만 아니라 축주의 정신적 손실로 인한 사육의지 상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양가들은 주어진 사육규모에 다 닭사육수수를 증가시키려는 유혹에 종종 빠지게 된다. 밀사는 바닥 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할 뿐 만 아니라 급이기와 급수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유발시킨다.

또한 밀사는 털갈이(환우)시 다량의 신선한 공기 이용을 억제(감소)하게 한다. 공간확보를 위한 경쟁은 계군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닭들을 허약하게 만들고 사양가는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밀사는 또한 stress를 불러오고 장내의 시작 유기체인 대장균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된다. 또 계군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는 CRD와 같은 복합질병을 불러오는 등 다방면에서 육계성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3) 환기부족

병아리들이 동시에 사육될 때는 방출된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가스를 피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은 적당한 환기가 되도록 윈치 커튼 윗부분을 열어줌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암모니아에 조기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감염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많은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생기는 충분한 산소는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계사의 환기요구량은 일정한 면적당 닭의 수용수수, 닭의 체중, 건물의 단열수준, 외기온도, 계사내 온·습도 유지목표 등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여야 한다.

4) 불충분한 급이, 급수기 공간

현재 하이브리드 육계는 병아리때 동시에 전수가 급이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뜨거운 날씨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데 병아리들이 물공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경우 탈수와 균일도 부족을 불러와 약추 병아리 발생의 원인이 된다.

즉 모든 병아리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쉽게 접근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층어리 발생을 줄이고 사료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질병 발생

질병은 다양한 형태로 닭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료와 물소비 감소, 증체지연, 심지어 체중감소, 폐사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사양가가 정확한 질병명을 확인하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상기 요인 등으로 조기에 질병 감염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질병이 한 계군의 10%정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을 때 다른 닭들은 내부임상 형태에서 감염균과 싸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상황에 따른 투약으로 다른 질병으로부터 복합 감염을 막을 수 있다.

방역 및 적당한 백신 프로그램과 적당한 영양공급은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투약은 치료보다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6) 부적절한 사료 교체 시기

사료교체에 관한한 사양가는 가급적 빨리 후기사료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다.

후기 사료로 교체시에 무리 없이 교체만 되면 우수한 사육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양가가 있으나 적당한 시기에 사료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료 교체시에는 계군의 평균 중량, 건강상태, 계절적 요인, 공급받는 사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전·후기 사료를 적절히 혼합해 가며 점진적 교체를 하여야 한다.

7) 각종 기본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필요

가을 및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열풍기 및

전기관련 기기의 사용량이 많아 누전 및 정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다.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출하를 앞둔 계군에 가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1년간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발전기 및 누전, 화재 경보기 설치 등을 통하여 동절기 발생가능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8) 기록 유지 관리

사양기록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동안 발생된 농장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초생추의 약추 도태나 폐사 기록을 정확하게 기제하여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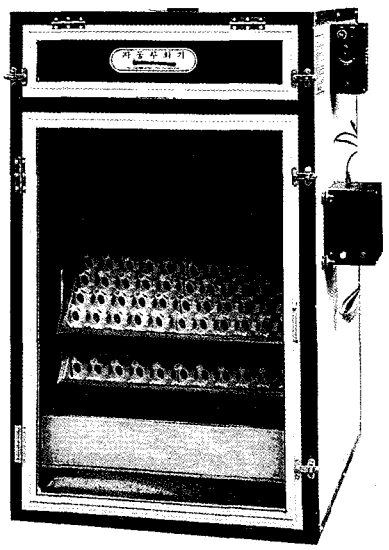
사료소비량과 재고량 및 음수량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농장내에 사료 및 음수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사내의 온도, 습도, 중량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전에 사육되었던 계군과 비교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 및 다른 점을 분석하고 다음에 입추될 계군에 반영하면 점진적으로 사양관리 기술이 축적되어 매 계군마다 본인이 원하는 생산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사육관리를 하면서 소홀히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양계 업계도 우리 사양가가 사육한 제품이 수출이 되어 선진국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생산원가, 제품위생,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계

자동부화기



생 산 품 목

소형 · 중형 부화기 제작전문
특수조류 부화기 주문제작

부화기 종류

닭, 꿩, 오리, 타조, 메추리, 칠면조

용 량

- KE- 90(90Eggs)
- KE- 500(500Eggs)
- KE-180(180Eggs)
- KE-1000(900Eggs)
- KE-300(300Eggs)
- KE-3000(3000Eggs)

은조상사
(031)575-0759